

## P-12 Immediate Implant Placement with GBR

권순영\*, 김영석, 장원혁, 정해수, 임성빈, 정진형  
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### 서론

최근 치아 상실에 대한 수복적 치료로써 전통적인 치료 방법과 함께 임플란트가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, 여러 치료방법 중 임플란트가 일차적인 치료 방법이 되기 위해선 기능적 요구 뿐만 아니라 심미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. 치근의 파절, 근관치료의 실패, 치은연하 우식 그리고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의 상실은 기능뿐만 아니라 안모 및 치열의 심미 유지를 어렵게 한다. 과거에는 발치 후 4개월에서 1년 정도를 기다려서 발치창의 치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임플란트가 식립되었으나, 치유 기간동안 협설 및 수직 방향으로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날 뿐더러 임시 보철물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치조골이 더욱 흡수된다. 이에 Lazzara가 1989년 발치를 한 직후 그 부위에 e-PTFE를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매식한 경우 골의 증대를 보인다는 사실을 처음 보고하였고, 그 후 많은 임상가들에 의해 다양한 immediate 임플란트 술식에 관한 증례 보고와 임상 결과가 발표되었다. 이러한 술식의 주된 장점은 임플란트 식립에 필요한 치조골의 폭과 높이를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, 발치와가 골화되기까지 소요되는 수개월의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치아가 상실되어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. Immediate 임플란트로는 발치 직후 식립하는 immediate placement와 연조직의 치유를 위해 4-6주 정도 경과한 후 식립하는 delayed placement가 있다.

이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immediate 임플란트 환자 중 delayed placement를 시행한 다수의 증례에서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.

### 증례

#### Case 1

상기 환자는 본원에 내원 당시 51세 남성으로 #46 근심 치근 파절로 인해 동통 및 부종으로 내원하였다. #46 발치를 시행한 후 6주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DFDB를 이식하고 GTAM으로 결손부를 피복하였다. 4개월 후 2nd stage surgery를 시행하였으며 GTAM을 제거한 결과 잘 형성된 골 양상을 볼 수 있었다.

**Case II**

내원 당시 19세 남성 환자로써 #22 동요와 저작시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치아주위의 심한 골소실로 발치를 시행하였고 4주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GTAM을 이용해 결손부를 피복하였다. 약 5개월 후 2nd stage surgery를 시행하였으며 GTAM 제거시 잘 형성된 골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.

**Case III**

내원 당시 55세 남성 환자로써 전반적인 치조골의 흡수 및 치아 소실로 내원하였다. #46 발치 후 4주가 경과한 후 #45, 46, 47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, DFDB 및 GTAM으로 발치와의 결손부를 피복하였다. 3개월 후 2nd stage surgery를 하였고 GTAM 제거시 골이 잘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.